

글로벌 AI 경쟁력과 기술·윤리 지표 분석 2025

글로벌 AI 기술력, 투자, 규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, 국내 기업이 기술 발전 속도와 윤리 기준을 함께 고려한 해외 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

01 글로벌 AI 산업 개요

I 시장 성장 및 민간 투자

- 2024년 전 세계 AI 민간 투자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
 - 미국 : 1,091억 달러 (중국의 12배, 영국의 24배 규모)
 - 생성형 AI 분야 투자만 **339억 달러**, 전년 대비 18.7% 증가
- **78%의 글로벌 기업이 AI를 활용**하고 있으며, 전년(55%) 대비 급증
 - 생산성 향상 및 인력 역량 보완 효과 입증
- **AI 접근성과 효율성의 향상**
 - GPT-3.5 수준 모델의 추론비용이 2년간 **280배 하락**
 - 하드웨어 비용은 연 30% 감소, 에너지 효율은 연 40% 향상
- **AI 기술 민주화**
 - 오픈웨이트(open-weight) 모델의 성능이 상용 모델 대비 1.7% 차이까지 좁혀지며,
 - 중소기업·스타트업의 AI 접근성이 확대됨

I 기술 리더십 변화

- 미국의 모델 생산량은 여전히 세계 **1위(40건)**이나, 중국 모델의 품질 격차가 급속히 축소되어 주요 벤치마크(MMLU, HumanEval)에서 거의 동등 수준에 도달
- AI 연구·특허 수에서는 **중국이 미국을 추월**, 중동·남미·동남아에서도 자체 모델이 등장하며 글로벌 기술 생태계가 다극화되는 양상

글로벌 AI 경쟁력과 기술·윤리 지표 분석 2025

02 주요 국가의 정책·투자 동향

I 공공 부문 투자 확대

- **글로벌 정부의 AI 인프라 투자 강화**
 - 캐나다 : 24억 캐나다달러(약 18억 USD) 규모 "AI Advantage" 계획
 - 프랑스 : 1,090억 유로 투자, AI 인프라 구축에 집중
 - 인도 : 12.5억 달러 투자 약속
 - 사우디아라비아 : 'Project Transcendence'(1,000억 달러) 발표, 알파벳(구글)과 협력하여 아랍어 기반 AI 개발 추진
 - 싱가포르 : 5년간 10억 달러 규모 AI 예산 확정
 - 아부다비 : MGX 펀드(1,000억 달러 규모) 설립, AI 전문 투자기관으로 운영
- **공공 AI 투자 비교 (2013~2023)**
 - 유럽의 AI 관련 공공지출은 10년간 67배 증가
 - 미국은 15배 증가, 격차는 점차 축소되는 추세
 - 유럽 내 최대 투자국 : 영국(2억6천만 달러), 독일·스페인(약 5천만 달러)

I 글로벌 거버넌스 및 법제화

- **2024년은 AI 규제·정책 확산의 전환점**
 - AI 관련 법안 언급 빈도 1,889건, 전년 대비 21.3% 증가
 - 미국에서는 주 단위 입법이 활발 : 2023년 49건 → 2024년 131건으로 급증
 - 딥페이크 규제 확산 : 24개 주에서 선거 관련 딥페이크 규제 시행
- **국제 협력체계 구축**
 - 영국·한국이 공동 개최한 AI Seoul Summit(2024년 5월), 10개국 AI 안전연구소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합의
 - 미국은 International Network of AI Safety Institutes(2024년 11월) 발족, 11개국(한국 포함)이 참여
- **EU AI Office가 '범용 AI 실무지침 초안(Code of Practice)' 발표**
 - 투명성·저작권·리스크 관리 등 4개 영역 중심의 규제 체계 마련

글로벌 AI 경쟁력과 기술·윤리 지표 분석 2025

03 산업별 적용 및 사회적 영향

I 주요 산업 적용 사례

- 의료 분야
 - FDA 승인 AI 의료기기 : 2015년 6건 → 2023년 **223건** 승인으로 급증, 사상 최대
 - **Stanford Health Care** : PAD(말초동맥질환) 조기 진단용 AI 모델 도입, 연간 1,400명 환자에 적용
- 경제·고용 분야
 - 전 세계 AI 관련 일자리 공고 비중 급상승 : 2024년 전체의 약 1% 수준
 - 미국(1.8%), 독일(1.15%), 프랑스(1.10%), 호주(1.14%) 등 선진국 중심으로 수요 확대
 - 주요 수요 기술 : 생성형 AI, 머신러닝, AI 윤리·보안, 자율주행 기술 등

I 공공 인식 변화

- AI에 대한 낙관론 강화
 - 중국(83%), 인도네시아(80%), 태국(77%) 등 아시아 지역의 긍정 인식이 두드러짐
 - 반면 미국(39%), 캐나다(40%), 네덜란드(36%)는 여전히 신중
 - 독일·프랑스·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낙관론이 8~10%p 상승
- 정책결정자 AI 관련 인식 차이
 - 미국 지방정책 담당자의 80% 이상이 **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 강화**를 지지
 - **얼굴인식 금지(34%)·기본소득(25%)** 등은 지지가 낮음

글로벌 AI 경쟁력과 기술·윤리 지표 분석 2025

04 한국 콘텐츠 기업을 위한 인사이트

01

AI 규제·거버넌스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

- 각국이 AI를 둘러싼 **규제·거버넌스 체계**를 빠르게 강화 중
 - EU : EU AI Office의 Code of Practice 제정
 - 미국 : AI Safety Institutes Network 발족
 - 아시아 : AI Seoul Summit 통한 다자 협력 강화
- 국가별로 데이터, 저작권, 딥페이크 관련 기준이 다르므로 **콘텐츠 제작·배포 시 리스크 관리 체계**를 갖춰야 함

02

AI 기술 활용에 따른 제작·운영 효율성 확보

- AI 접근성과 비용이 급격히 낮아지며, 제작, 번역, 편집 등 **콘텐츠 생산 전 과정 자동화 가능**
 - GPT-3.5 수준 모델 추론비용 2년간 280배 감소
 - 하드웨어 비용 연 30% 감소, 에너지 효율 연 40% 향상
- 생성형 AI는 단순 보조도구가 아니라 **창작 파트너**로 활용할 시기
- 다국어 현지화, 스토리 개발, 대화형 서비스에 적극 적용

03

국가별 산업·노동 구조에 따른 협력 전략 차별화

- AI 관련 일자리 비중이 급상승
- **선진국(미국·유럽)** : 규제 중심
 - 신뢰·투명성 강조형 접근
- **신흥국(중동·동남아)** : 정부 주도 AI 인프라 확충기
 - 협력 프로젝트 중심
- 한국 콘텐츠 기업은 시장마다 **규제 대응형(선진국)**과 **협력 인프라형(신흥국)**으로 전략을 구분해야 함

04

글로벌 여론·AI 인식 차이에 따른 수용성 전략

- 아시아는 AI에 긍정적 (중국 83%, 인도네시아 80%), 서구권은 신중함 (미국 39%, 캐나다 40%)
- 이는 콘텐츠의 **AI 기반 추천·생성 기능**이 지역별로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시사
- 따라서, **AI 도입 콘텐츠 서비스의 투명성·윤리성·사용자 통제권 보장 수준을 지역별로 조정**해야 함

05

AI와 콘텐츠 산업 간 융합 생태계 구축

- AI 기술이 의료·교육·문화 등 모든 산업으로 확산 중
- AI 의료기기 승인 건수가 2023년 223건으로 급증하며, 실제 임상 도입 성공 사례와 같이 **AI의 실증적 활용이 빠르게 제도화**되고 있음
- AI를 단순 도구가 아닌 **플랫폼·경험·데이터 기반 서비스 혁신의 핵심 축**으로 통합해야 함